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5차(임시)	일자	2021.06.07.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O	X	O	O	X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X	O	O	O	O	8

*단위별 보고, 보고안건 생략

1 논의안건

1.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총: 중운위 임시회의 개최하도록 하겠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일전에 진행된 중운위 피드백이 반영된 자료이다. 한번 정독해주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독시간은 27분까지 갖도록 하겠다. 네 피드백 있으시면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해당 설문조사를 포탈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검토해주신다고 하셨다.

인문.정: 인문대학 피드백하자면 큰 피드백은 없고 지금 설문조사 바뀐 개선안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항 2번에서 확보 재원을 6,7,18씩 가계곤란장학금을 전환한다고 나와있다. 이걸 선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추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만 조금 피드백 드리고 싶다.

총: 네 사실 해당 내용은 저희 중운위 대표자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따라서도 장학금의 비율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다. 저번에도 부총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은 3%를 감축을 하고 나머지 7%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자분들과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인문.정: 그러면 어차피 차후에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문대학은 일단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피드백은 별도로는 없다.

사과.부: 제가 임시회의를 들어오지 못해서 녹화본도 아직 다 못 들어서 논의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도 저도 먼저 인문대 회장님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예시안이라도 있었으면 학우분들께서 조금 더 80%, 70%, 60%의 범위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재원의 그냥 이 수치상으로 나와져 있는데 뭔가 이 수치가 각 분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좀 잘 안 와닿아서 뭔가 이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 드린다. 그리고 문항 3번에 원래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그러니까 해당 문항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 묶여있지 않고 단순히 복지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원래 장학TF에서 나왔던 일취월장 장학금은 소득과 관련 없는 장학금이라 아예 이 카테고리에서 삭제된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문항 3번에서 기존의 장학제도에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장학제도는 무엇입니까에 없음 의견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약간 여쭙고 싶다. 왜냐하면 없음은 기타의견에 없음 이라고 적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없음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지 왜냐하면 실상 비율을 저희가 확보 재원의 100%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확보된 재원의 나머지 20%, 30%, 40%는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없음 이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 재원이 붕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항목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 드린다.

총: 우선 세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문대 회장님과 동일한 의견을 내주셨고 두 번째로는 문항 3번에 추가설명에 복지장학금 설명은 있으나 일취월장 장학금의 내용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나 변동이 된 것이냐 맞으시죠?

사과.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 전에 설문조사 시행을 봤을 때는 근로장학금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지금 바뀐 설문조사에 보니까 복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소득분위 사각지대 지원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다. 그래서 일취월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 않아서 맨 처음 저희 중운위 차원의 TF말고 맨 처음 TF에서는 일취월장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 카테고리에 안 맞아서 빠진 건지 그게 궁금하다.

총: 네 그리고 문항 3번에 기존의 장학제도 중 확대되었으면 하는 장학제도는 무엇입니까에 없음의 의견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 맞는지?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확대시키는 것과 기존에 있는 장학제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다른 맥락에서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없음 이라는 답변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왜 없음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쭙보도록 하겠다.

사과.부: 네 제가 없음 문항을 없애고 싶은 이유는 없음 문항이 다수가 되어버리면 무언가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맞아서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린 것이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아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아직 성적장학금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기로 한 것인지?

부총: 사전신청제도 말씀하시는 건지?

사과.부: 네 혹시 TF가 거듭되면서 아예 그 이야기가 없어진건지?

총: 그러니까 저번에 TF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사전신청제도가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 장학제도 개선의 적용 시기가 이제 차기년도 1학기 때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질문이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사전신청제도를 무조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부 제가 일부일지 다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장학금을 이제 증명서는 받기를 원하는데 장학금을 수혜받지를 원치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어차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사과.부: 네 이해했다.

총: 네 그러니까 본인은 부유하니까 장학금액을 양보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

통공.부: 공대 말씀드리겠다. 3번 다 항목 없음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추가적인 피드백은 없다.

총: 네 우선 맞춤법과 관련 교정은 내일 중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최종본을 올려 드리겠다. 그거 감안하고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란다. 피드백이 없으신지?

간호.정: 추가의견 없다.

총: 피드백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다. 총 다섯 가지의 피드백이 있었고 첫 번째로 문항 2번에 확보 자원

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포함시키자 두 번째로 문항 3번에 최초 가안에는 일취월장 장학금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가안에는 소득분위 내용과 상관이 없어서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로 다 항목을 삭제하자 네 번째로 맞춤법 교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자 다섯 번째로 포탈에 설문조사를 기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확인하자 총 다섯 가지의 피드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고 중운위분들께 최종확인을 받을테니 그때 또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피드백 더 이상 없으신지? 네 피드백 없으신걸로 하고 저희 차기 회의는 다다음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니까 다다음주 월요일에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리더스포럼 등의 안건이 상정 될 예정이고 그전에 가능하시다면 단운위별 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방학 때 중운위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지?

총: 우선 저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제가 투표를 올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격주로 진행할 것인지는 차기 회의에서 안건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럼 조사위원회의부터 중운위 임시회의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들 시험공부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 다들 수고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